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시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95장 (통일찬송가 82장)	
교 독 문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찬 양 과 경 배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기 도	편도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8장 1~13절	요 12:1~8
설 교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임춘배 목사)	사랑하기 때문에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이하은 성가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오후

사회: 백다현 학생

찬 양	파워틴(청소년부)
기 도	이하연 학생
성 경 봉 독	시 139편 1절
말 씬	내 이름 아시죠
설 교	윤 영 전도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시편 61편 1~8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요셉회입니다.
 -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헌 신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선 교 바 자 회** 2023년도 국내선교 준비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 날짜: 8월 27일(주일)
* 물품: 중고 또는 새 물품, 의류, 경건 서적 등 / 기한: 오늘까지
* 물품 보관: 1층 안디옥실
- 국 내 선 교** 2023년도 국내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날짜: 9월 7일(목)~8일(금)
* 장소: 원주 주안예교회(이정필 목사)
* 참가 신청: 국내선교부 전희영 집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384장)
본문	사도행전 25장 10~12절(8월 21일 본문)
포인트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말씀	<p>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바울은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얼마 후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하게 요청했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신중하게 대답해요. 가이사라로 돌아간 베스도는 재판관을 소집하고 바울을 물렸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여전이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길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 황제(가이사) 앞에 안전하게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을 고소하는 많은 유대인 앞에서나 로마 총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베스도를 통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끌고 온 재판은 결국 바울의 상소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26:32).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 주셨고, 바울은 그 비전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p>
나눔	<p>법정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사이사)에게 가겠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1절; 참조. 23:11)</p> <p>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사명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 내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p>
가족 미션	<p><우리 가족 말씀 지도 만들기> *준비물 : 도화지, 색 펜, 성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화지 아래쪽에 출발지(가족의 모습이 있는 우리 집)를, 위쪽에 도착지(천국)를 그립니다. 2. 가족 수만큼 중간 경유지를 표시하며 길을 만듭니다. 3.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말씀)을 각자의 이름(경유지) 옆에 적습니다. 4. 현관문에 붙여 두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도	

제목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히 8:1~13)
서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섬기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본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 언약의 탁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1절) (2)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계속 섬기고 계심 (2절) (3) 땅에 있는 성소와 섬김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5절) (4) 첫 언약의 흠으로 인해 새 언약을 주심 (7, 8절) (5) 돌판에 새긴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함(9, 10절) (6) 율법과 관련된 옛 언약은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새 언약을 세우심(13절) 2. 교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중요한 요점은? (2)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의미는? (3)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왜 옛 언약이 폐해졌는가?
결론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편도선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인섭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이하연 학생	김점분 권사
주 방 봉사	요셉회	청년/청소년

매일 Q.T.	가이사의 재판 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	날짜 : 8월 21일 월요일
---------	-----------------------------	--------------------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사도행전 24:24~25:12
말씀요약	총독 벨릭시는 예수님 믿는 도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뇌물을 바라고 수시로 바울을 부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만,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심문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목상질문 1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는 바울 24:24~27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상질문 2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 25:1~12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추진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도행전 24장 24~25절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벨릭스에게 바울의 복음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줍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벧전 2:8). 복음은 죄로 가득한 자신과의 직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복음의 빛을 본 사람에게에는 붙잡아야 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죄의 높은 성벽을 뚫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걱정이나 두려움에 묻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제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언제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주님의 종, 주님의 증인”	
찬양과 기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436) 빛 되신 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대만의 국민배우 리텐주(Li Tianzhu, 李天柱)는 2016년 대만 Golden Bell Awards에서 남우주연상 수상 소감으로 주기도문을 낭송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이 자리에 세워 얘기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며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3년 미국에서도 특별한 졸업식 고별사가 있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립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로이 코스트너(Roy Costner)는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하게 되었다. 그는 강단에 올라 학교의 승인을 받은 원고를 찢고 자신이 준비한 다른 원고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고, 회중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했다. 당시 그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속한 피켄스 카운티의 모든 공립학교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라는 단체의 압력으로 인해 학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리텐주와 로이 코스트너 모두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한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있나요?
말씀 나누기	사도행전 26:13~23
목상포인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종’과 ‘증인’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종’과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시작해 주님의 증인으로 마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 전파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안위를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추구할 거룩한 부르심이자 사명입니다.
관찰과 목상	바울은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16절)
적용하기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종’이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함께 기도하기	저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제 안위를 추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이끌어 주소서.
기도	

매일 Q.T.		사랑과 열정의 사슬에 결박된 전도사	날짜 : 8월 25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498장 저 죽어 가는 자 다 구원하고		
본문	사도행전 26:24~32		
말씀요약	바울은 자신더러 미쳤다 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자신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그립바왕도 믿기를 거부하자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자신처럼 되길 바랍니다. 아그립바왕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목상질문 1	베스도와 아그립바의 반응 26:24~29 아그립바를 비롯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품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나요?		
목상질문 2	무죄를 인정하는 권력자들 26:30~32 이방 권력자들은 바울의 죄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한절목상	사도행전 26장 24절 베스도 총독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과함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때로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그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은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향기보다 나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매일 Q.T.		오랜 재판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날짜 : 8월 22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사도행전 25:13~27		
말씀요약	가이사랴에 방문한 아기름바왕에게 총독이 바울 사건을 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하는 왕 앞에 그를 세웁니다. 총독은 자기가 살펴보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과 달리 바울이 사형에 처해질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에, 죄목 없이 그를 보낼 수 없어 심문한다고 합니다.		
목상질문 1	바울에 관한 베스도의 보고 25:13~22 베스도는 아그립바에게 바울의 고발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나요?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목상질문 2	아그립바 앞에 바울을 세움 25:23~27 베스도는 바울을 심문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화려한 권력자들 앞에서 성도가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도행전 25장 21, 25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판결받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베스도는 바울을 지켜 주고 로마로 보내겠다고 결정합니다. 외면상으로는 힘 있는 베스도가 바울의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베스도를 통해 그 일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시작하시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요란한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고난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환난마저도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매일 Q.T.		복음 전도의 핵심, 부활 신앙	날짜 : 8월 23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본문	사도행전 26:1~12		
말씀요약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아는 아그립바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소당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대적해 성도를 박해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고하며 전합니다.		
목상질문 1	부활 신앙을 전하는 바울 26:1~8 바울은 자신이 심문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에게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바울의 과거 회상 26:9~12 바울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사를 언급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잘못된 지식이 가져온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목상	사도행전 26장 2절 유대인의 고발로 재판정에 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재판정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성도의 삶을 반전시키는 열쇠는, '복음 시선'으로 자기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머리로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부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세상이 영원할 듯 여기며 세상 것에 집착하는 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매일 Q.T.		'종'과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	날짜 : 8월 24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본문	사도행전 26:13~23		
말씀요약	바울은 해보다 밝은 빛 때문에 엎드려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체험을 전합니다. 그는 주님께 순종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음에서 부활해 모두에게 빛을 전하심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다고 변론합니다.		
목상질문 1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 26:13~18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요?		
목상질문 2	사명대로 순종한 바울 26:19~23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사명에 어떻게 순종했나요? 큰 고난이 따를 때, 나는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한절목상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심고 가꾸는 특권을 그분 백성에게 허락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의 종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도 순종하게 하소서.		